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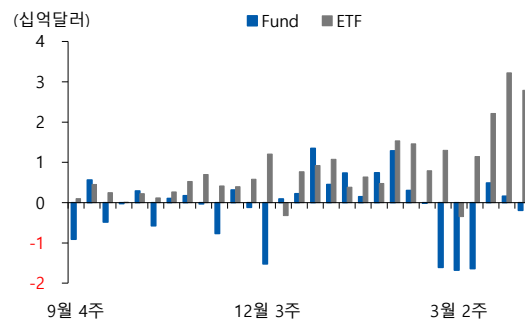


장기투자 외국인은 버틴다

1. 펀드 비중이 높은 미국계 자금은 국내주식 매수

- 연초 이후 국내주식 매도를 이끈 주요 국가는 영국과 룩셈부르크
- 연초 이후 미국(2조 2090억원), 아일랜드(5730억원), 일본(5290억원) 등은 국내주식 순매수
- 3월 금리인상 이후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 증가 추세.

펀드 비중이 높은 미국계자금은 국내주식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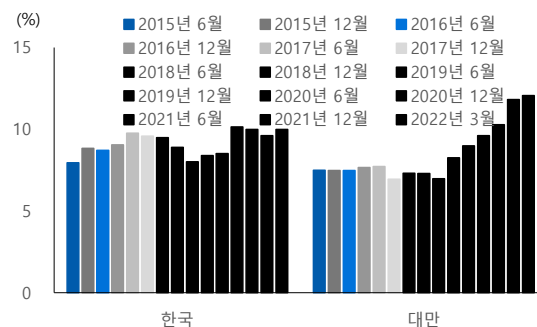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러시아 비중 급감, 인도와 대만 비중 증가

- 2020년 하반기부터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 감소 추세
-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경제 제재로 신흥국 펀드 안에서 러시아 비중 급감. 대만과 인도 비중은 증가 추세
-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10% 수준. 러시아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국 비중 확대 가능성 있음.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비슷, 대만 비중은 증가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펀드 비중이 높은 미국계자금은 국내주식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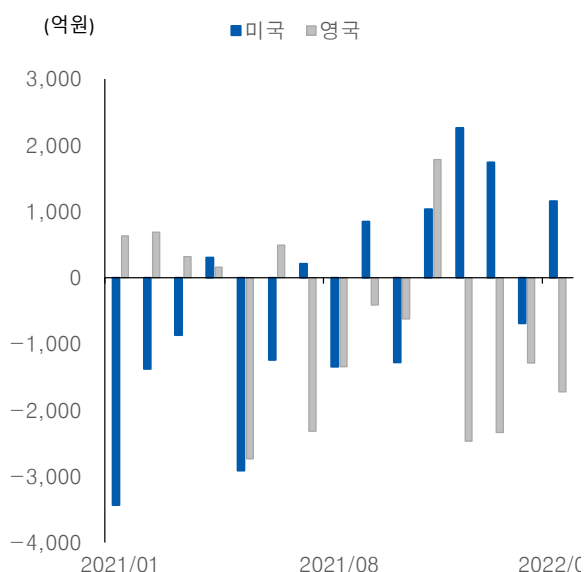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의 국적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매도를 이끈 주요 국가는 헤지펀드·패밀리 오피스 등이 있는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이다.

1분기에 영국은 5조 3450억원, 룩셈부르크는 1조 4560억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2조 2090억원), 아일랜드(5730억원), 일본(5290억원)은 국내주식을 순매수하였다.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뮤추얼펀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펀드 유출입에 영향을 받는다. 신흥국 주식펀드의 자금 동향을 살펴보면, 3월 금리인상 시행 이후 자금 유입 규모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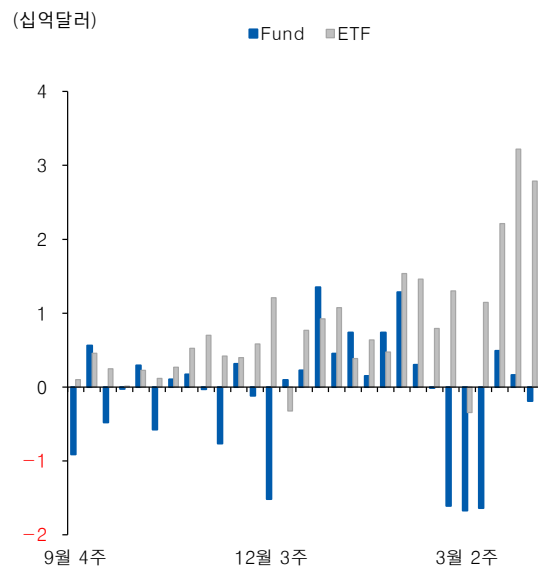
아시아(일본제외)주식ETF도 3월 이후 순유입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신흥국 주식시장이 미국 등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저평가되어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펀드시장에서는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차트1] 미국계 자금은 국내주식 매수, 영국계 자금은 국내주식 매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국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 규모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흥국 펀드 안에서 러시아 비중 급감, 인도와 대만 비중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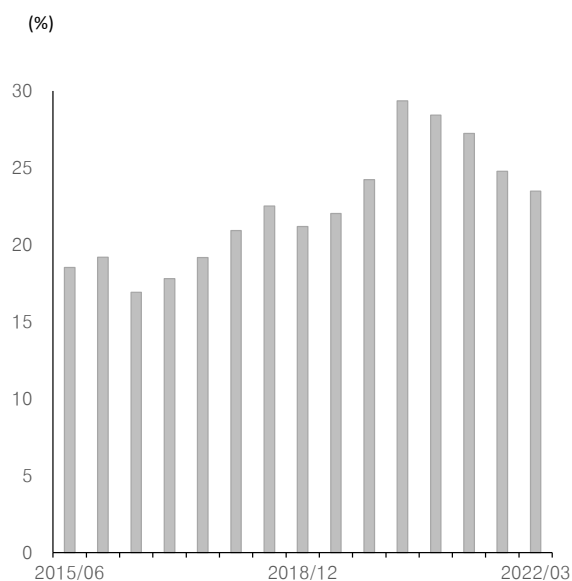
글로벌펀드 중에서 한국에 주로 투자하는 주요 유형은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 제외)주식펀드를 들 수 있다. 러시아 비중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폭이 크지 않았던 한국 투자 비중 확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4년 19%에서 2020년 29%까지 늘어났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와 경기 우려 등으로 신흥국 내에서 중국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2021년말 7.1%였던 신흥국 주식 펀드 내에서 비중이 2022년 1분기말 0.2%로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 경제 제재 여파로 러시아의 투자 비중은 단시간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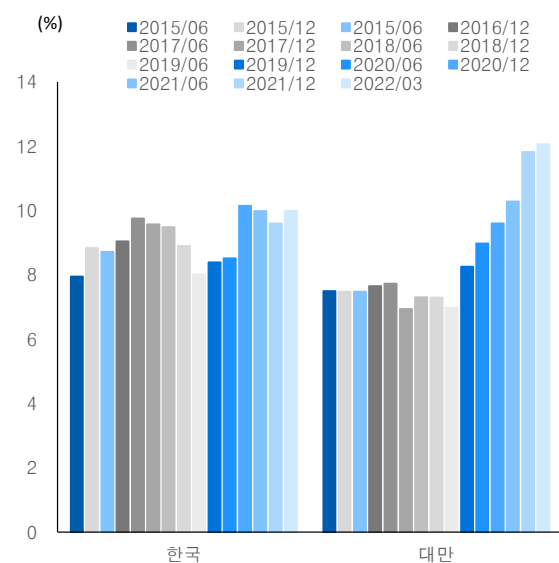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은 2020년 하반기부터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대만 비중은 2020년말 9.6%에서 2022년 1분기말 12.1%로 늘어났고, 인도 비중은 같은 시기 9.3%에서 11.7%로 늘어났다.

[차트3] 신흥국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은 감소 추세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신흥국 펀드 안에서 대만 비중은 증가 추세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